

남원의 겨울, 텐트 밖은 낭만이 펑펑~

23·24일 예루원·화인당 일원 캠핑+소풍 '동·동·동화 축제' 동반자와 텐트서 화롯불 쬐며 수다...동화·전통놀이 등 다채

남원에서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겨울(冬)과 아이(童), 그리고 동화(童)를 모티브로 한 색다른 축제가 열린다. 남원시는 예루원 일원에서 오는 23일과 24일, '텐트 밖은 낭만 캠프'를 테마로 '2023 동·동·동화 축제'가 열린다.

동·동·동화 축제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축제가 열리는 이틀간 예루원과 화인당은 한옥의 따스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반짝이는 공간으로 연출된다. 또 다양한 공연과 함께 체험행사까지 더해 동화 같은 축제로 울겨울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축제의 주 공간인 예루원 앞마당에서는 캠핑과 소풍(피크닉)을 더해 낭만 가득한 '캠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족들과 인디언 텐트에서 따뜻한

화롯불을 쬐며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따끈한 겨울 간식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또 할머니가 읽어주는 K-동화, 추억을 되새기는 전통놀이 등 어른과 아이가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예천 옆 더(the)이음 공연장에서는 남원소년소녀시립합창단의 아카펠라공연을 비롯해 마술공연과 크리스마스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열린다.

남원시 관계자는 "한겨울 추위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햇빛함에 더욱 출제간 느껴지는 겨울을 2023 '동·동·동화 축제'를 통해 동심과 낭만을 즐기며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장학재단, 지역인재 265명에 1억5800만원

성적·특기·다자녀 등 4개 분야

(재)고창군장학재단이 '2023년 고창군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지역 학생 265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1억58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장학증서 수여는 성적우수 분야를 포함해 성적향상, 특기(예·체·기능), 농어촌활력, 다자녀 가정 등 4개 분야(개인 260, 단체 5)다.

이는 지난해 장학생 201명(1억1700만원)보다 64명, 41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금을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성적 우수 장학생은 학업성적과 생활정도를 심사해 선발했으며 성적향상 장학생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전년 대비 성적이 향상된 학생을 추천 받았다.

특기(예·체·기능), 농어촌활력 장학생은 자격증 취득자와 수상성적을 평가했다.

다자녀 장학생은 3자녀로 2자녀 이상이 대학교



에 재학중이거나 4자녀 이상으로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심사를 통해 뽑았다.

장학재단 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역인재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센터 내년초 착공

성내면 조동리 일원 375억 투입...실기시험장·활주로 등 조성

고창군이 4차 산업 핵심분야인 드론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공간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184-4번지 일원에 8만9560㎡(약2만7000평) 규모로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활주로(200m×20m), 및 실기시험장(90m×40m×4면) 등을 구축한다. 총 사업비는 375억원이다.

드론통합지원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운영관리 할 예정이며 센터를 이용

하는 연간 교육 인원이 1000여명, 자격시험 인원이 1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관련 산업의 확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고창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드론과 첨단물류, 반도체 등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며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고창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낙동강수계기금사업 성과 '우수'

하수처리 효율 운영...수질개선·오염물질 경감 호평

남원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22회계연도 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기금 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 중이다. 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4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관리·집행과 성과목표 달성 등의 지표를 살펴 사업별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남원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수질개선과 수질 오염물질 경감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하수도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비, 환경기초시설 인식개선 사업 등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선정

국비 4억원 확보...내장동 일원 양서류 생태통로·식생 복원

정읍시가 환경부 주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생태계 보전·복원에 나선다.

정읍시는 2024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복원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돼 ㈜에코탑플러스를 대행사로 정하고 내장동 502번지 일원에 양서류 생

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식생복원, 종합안내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은 큰산개구리, 두꺼비 등이 밀집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통로가 없어 해마다 산란기 때 로드킬 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큰 곳이다.

이화수 정읍시장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훼손된 생태계를 보전,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이복형 정읍시의원 14년째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 성금 1000만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사진) 위원장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1000만원을 고부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14년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씩 기탁하고 있으며, 사랑과 관심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아름다운 기부를 통해 지역 사랑 실천을 계속 이어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 경제산업위원장을 역임하며 시민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5분 자유



발언, 건의안 등을 통해 정읍시의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복형 의원은 "장기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정착 지원

다음달까지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정읍시가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인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에 뜻이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초기 정착지원금

과 교육·컨설팅, 후계농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영농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후계농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설치, 농기계 구입 등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엄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교육 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